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9호 현대불교
2007년 3월 14일(음력 1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마음의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안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이유

문 선원과 인연이 되어서 마음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 어떤 거 하나 허투루 해 놓은 것이 정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에서부터 재사, 공부 방법, 뜻밖이 경전, 하다못해 선법가까지도 타력으로는 조금도 틀림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모든 것을 오직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 놓으셨는지요?

답 여러분께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에서 참선이라는 것을 알 양으로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참 감개무량하고 어떤 면 너무 기쁩니다. 생활에도 도리가 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참 도리가 있어야 하고, 중심과 중도(中道), 중용이 있듯이 불가에서도 부처님 법을 진짜로 전수받고 진짜로 내가 정각을 이룰 때에,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틀리면 아니 되니까요.

팔만대장경을 보기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 죽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봄이든 피고 또는 늦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그러는 게 있는가 하면 사계절을 푸르게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좀 더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은 됐으나 아주 100% 인간이 돼야만 진짜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탄생시켜서 놓으면 그냥 인간이라고 하긴 하지만 100% 어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 완전히 인간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될 뻔한 분이 있고 아직도 한창 자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도 견성한 것은 금방 태어난 아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돌 아닌 돌리를 알기 위해서 또 숨을 녹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알기만 하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목마른 데 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돌 아닌 돌리를 알았으면 돌 아니게 나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것이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것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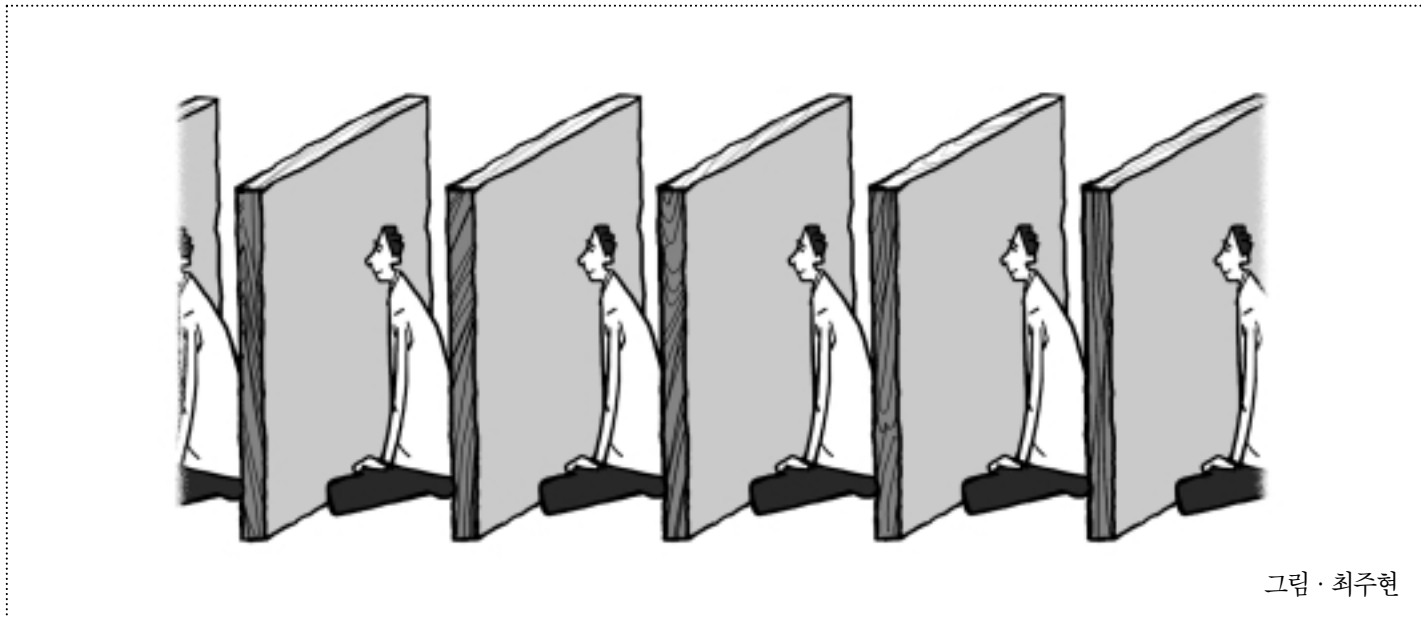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 틀려 넘어갑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부 틀리고요. 여러분이 현재에 사시면서요. 그러시죠.

그와 같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선(行禪)이라고도 하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니까요. 곧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구(活句)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삼세(三世)를 돌아가면서 이 모든 병풍 둘러쳐듯 한 이 세계, 우주 만물이 자체는 아마 '팔만대장경은 저러 가라' 할 겁니다. 왜? 팔만대장경 자체가 그냥 고정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글자로 보이거든요. 글자라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 뒷면에, 백지의 뒷면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너머 세계가 있고 서방 너머 세계가 있고 남방 너머 세계가 있고 모두 이렇게 있듯이, 이 너머

세계가 다시 또 있고 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직결하지 못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서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하고, 경을 읽어서 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지만 문이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야 할 것이지 문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질 않아야.

그렇기에 나는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없고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라." 이겁니다. 각자 나로 인해 생긴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끌어 가는 나의 선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놓으니까 "참,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왜 다 보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모두 그 겹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와 겹데기가 돌이 아니게 만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울게 된 것도 자기가 한 거, 웃게 한 것도 자기가 한 거, 즐거운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슬픈 것도 자기가 한 거, 자기 가 있으면서 된 겁니다. 그게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나로부터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가 하는가? 그래서 자기로 부터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자라 가지고 '아! 세계는 이런 거구나!' 또 어른이 돼 가지고 '아! 세계는 우주화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움직여지고, 보고 들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아닌 자기가 하는 거죠. 부처님

께서 자기 그림자와 자기가 서로 싸운 겁니다. 돌 아니게 싸운 거죠. "너는 내 겹데기 아니야?" 그러니까 겹데기가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알맹이 아니야?" 하고 말합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지금 공부해 내려가는 그 모두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해 주는 것도 없고 남이 주는 것도 없고 뺏어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있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를 아주 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빼놓고 부처님을 위에 모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백날 가도 부처님 속에 같이 한자리를 못합니다. 알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나와 돌 아니게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으로 인해 자기 조상을 상봉을 한다면 바로 그게 견성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성불이요.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응신이 돼서 나를 때, 그때에 바로 열반경지까지, 구경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자기도 웃어도 자기도, 못해도 자기도 잘해도 자기도, 망해도 자기도 승화가 돼도 자기도요. '몽땅 놔 버려야 한다.' 이런 것도 말합니다. 본래 몽땅 놓고 가는 겁니다. 왜냐? 내 몸속에 그렇게 자생증상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같이 더불어 돌아가니까 그놈의 게 전부 공(空)했죠. 네? 혼자 하는 게 한 알맹이도 없어요. 혼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뭐 별게 다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거는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얻어야 다 줄 수가 있는 거지 다 잃지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금에 대해서

문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게도 저 혼자 수습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큰스님 진경을 두 차례 했습니다. 저번 달에 한 것까지 세 차례 했습니다만 저는 정성금을 큰스님께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스님께 드리고 싶은 금액이 제 나름대로 정

22면으로 계속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

단지 화창한 날씨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돌 뿐!

불교한문학과 육조단경강좌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응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교과목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통선반

교과목	· 육조단경(2007년 상반기), 주역(1), 주역(2)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실문해자
지도법사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한국고전②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 심계동교수(동국대) · 심경호교수(고려대) · 황안웅교수(원광대) · 무진장스님 · 김형중(동대부교 교법사)

3. 실시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사찰음식문화학과 3월 21일 개강
(선착순 30명 모집)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한국전통예술의 보고

승무·법고

신입생 모집

■ 승무·법고 작법(2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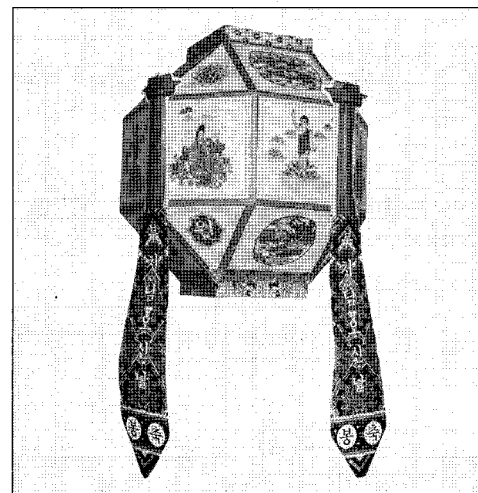
1. 개설취지

우리민족 고유음의 움직임인 승무와 법고의 예술수행을 통해 불·법·승 삼보에 공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공양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강좌를 개설합니다.

2. 교과목

내용	1학기	몸만들기/움직임의 기초(살풀이 기본)
	2학기	승무익하기
	3학기	승무/법고익하기
	4학기	승무를 이용한 육법공양 및 창작
지도법사	이철진 (한국춤예술원장)	

3. 개강일시 2007년 4월 4일 (수) 오후2시
매주 수요일 오후2시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짐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이룰때고 몇 스러온 등' 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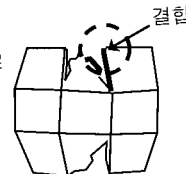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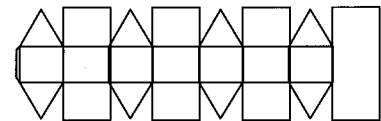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화,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합」하여 풍족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팔천 상태 (풀칠 및 인쇄없이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포렌텍
● 농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포렌텍